

주장사파라...

⑧ 춘성 스님의 '언중유골'



조태호



춘성 스님(1891~1977): 강원도 인제 생. 신홍사로 출가해 백담사에서 만해 스님께 득도. 만공선사의 법을 이어 25년간거만. 만행과 기행, 촌철살인의 언변으로 유명.

람비니림신(嵐毘尼林神)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숲을 맡고 있는 신이다. 선재동자는 다시 이 룸비니 숲 동산에 있는 '묘한 덕이 원만한 신(妙德神)'을 찾아가는 것이다. 숲에 이르러 보니 그 신은 한량없는 천신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보살의 태어나는 광대한 법을 설하는 경(菩薩受生海經)'을 설하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보살행을 닦아 여래의 가문(家門)에 태어나서 세상의 큰 광명이 되는 법을 묻자, 그 신은 보살의 '열 가지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 태어나는 장(藏)'을 설하는 것이다. 그 신은 "보살이 이 법을 성취하면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서 잠깐잠깐에 보살의 선근을 증장되 고달프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싫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으며, 굶어죽지도 않고 있음도 없으며, 모든 미혹을 여의어 겁약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온갖 지혜에 나아가 법계의 문에 들어가며, 광대한 마음을 내고 모든 바라밀다를 증장하여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세상길을 버리고 여래의 지위에 들어가 훌륭한 신통을 얻으며 부처님의 법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온갖 지혜의 진실한 이치를 따르게 된다."고 하면서 '열 가지의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 태어나는 장'을 설한다.

그 열 가지는 ①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위하여 태어나는 장, ② 보리심을 내어 태어나는 장, ③ 여러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행을 닦아 태어나는 장, ④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 세상을 두루 비추어 내어내는 장, ⑤ 평등한 광명으로 태어나는 장, ⑥ 여래의 가문에 나게 되는 태어나는 장, ⑦ 부처님 힘의

권찬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58>

람비니림신의 법문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는 10가지 법 설해 보살과 부처의 '하나' 되는 경계 가르쳐

광명으로 태어나는 장, ⑧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여 태어나는 장, ⑨ 장엄을 널리 나누어 태어나는 장, ⑩ 여래의 지위에 들어가 태어나는 장이다. 이 열 가지는 모든 보살이 이것을 행함으로써 불가(佛家)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문에서는 다시 이 열 가지 장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은 모든 부처님을 공경 공양하여 깊은 믿음을 내고 모든 공덕을 끊임없이 닦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갖 지혜(一切智)를 얻고 선근을 모으는 출발점이 된다. ②는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 하거나, 바른 법을 널리 구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 등이다. ③은 여러 법문을 관찰하여 끊임없이 온갖 지혜를 구하려 하고, 모든 보살의 공덕을 닦아서 이루려 하며, 보현행

을 나타내는 것이다. ④은 모든 경계의 차례를 잘 알아 중생에 수순해서 도를 이루는 공덕과 여러가지 정엄을 나타내고, 방편으로 중생들을 조복하는 것이다.

위에서 설하고 있는 열 가지 법은 보살이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는 법을 설하는 것으로서, 보살로서 부처님의 덕행을 갖추는 법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묘한 덕이 원만한 신'은 이 열 가지 법을 설하고 나서, 이 법을 닦아 익혀서 원만하게 성취하게 되면, 모든 중생을 영원토록 인도하고 깨우칠 수 있고, 모든 세계에서 성불함을 나타내며 사이가 끊이지 아니하며, 온갖 법으로 도량을 장엄하고 생명의 유망과 이해하는 차별을 따라 성불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부처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속에 가려져 있는 이상아랫한 경계사(界)이다. 그 경계는 진정한 인격으로 활동하는 참 생명의 세계이다. 참 생명의 드러남인 참된 인격이 작용하는 곳에는 이미 보살의 경계와 부처의 경계의 구분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출현품>에서도 "보살행이 여래성이요, 여래성이 보살행이다"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화엄(華嚴)'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의 꽃으로서 부처님과 그 세계를 장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화엄의 세계에는 본질적으로 보살의 경계와 부처의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경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묘한 덕이 원만한 신'의 법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 법문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생명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터즌 교리문답

목조선의 '비취본다'는 의미는?

문 목조선에서 '목조(木照)'는 목목이 비취본다는 뜻인데, 무엇이 무엇을 비취보는 것입니까? (D '목조선')

답1: 목조선은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철저히 믿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번뇌와 망상을 방하착하고 오로지 좌선만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없으면 한 시간 부처, 두 시간 없으면 두 시간 부처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무엇을 인위적으로 비추다기 보다는 머리속의 번뇌와 망상을 썬으로 인해서 자연히 올바르게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D 'iron')

답2: 목조선에서는 모든 망상과 번뇌를 방하착하고 오로지 좌선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어나는 망상과 번뇌를 조건(照見) 합니다. 회광반조를 통하여 배후무일물의 공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름을 갖고있는 수행법들도 모두 마음 하나를 알기위함이나 목조선에 대한 편협한 이해는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D '목조선')

답3: 대혜 스님이 목조선을 무조건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면목이 부처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부처라는 이론적 주장에 안일하게 머무르는 아류의 수행자들을 질타한 것입니다. 목조선의 '회광반조'는 간화선에서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D '이빛고')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21세기 불립문자(不立文字)-5

칼 야스퍼스가 '축(軸)의 시대'라고 일컫은 고전문명의 형성기, 즉 서력기원전 5세기 앞뒤로 각각 3세기 정도에 걸친 시기에 등장한 위대한 사상가와 종교적 선지자 가운데에는 글을 남기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앞의 글에서 했다. 그들의 사상과 언행은 뒤에 제자나 제자의 제자들이 문자 기록으로 남긴 덕분에 오늘에 전해진다. 옛날에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고 극히 특수한 사람들만 글을 읽고 썼지만, 그들은 식견이나 지위, 또한 관심사로 보아 글 읽고 쓰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을 듯한데 왜 말은 그토록 많이 하면서도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 시대는 동·서양 고대문명의 중심지에서 바야흐로 문자의 사용이 본격화

된 때였다.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이지만, 본격적인 기록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그때라는 얘기이다. 그 동안 구비전승(口傳傳乘)이던, 즉 입에서 입으로 말과 기억으로 전해오던 것들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기록의 대상이 된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성스러운 이야기들이었다.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싸잡아 부르는 이야기들이었다. 인도에서 베다 내지 우파니샤드 문헌이 등장했고 호메르(Homer)가 전래 신화를 글로 써서 편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기원전 5세기 전후부터는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문자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앞글자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말을, 그것도 세계와 인생의 궁극적인 진상에 대한 심각한 통찰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광장히 많이 했으면서도 정작 글을 쓰지는 않았다. 그들이 글을 남기는 일에 대해 뭔가 공

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을 앞의 글에서 제기했다. 그런 짐작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석가모니,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예수 등이 모두 언어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특히 말보다는 글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었던 것들이다. 그들의 그런 면모도 뒤에 글로 전해진 것이어서 정말 당사자들이 그랬는지, 그 글을 쓴 이들의 생각이 거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大覺)을 이루고 나서 삼십일동안 꼼짝 않고 그 거리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때 석가모니는 마침내 생사문제를 해결한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한편으로

당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르쳐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고 한다.

궁극적인 통찰과 지혜는 말로 온전히 전할 수 없다

다. 그 중요한 깨달음을 당연히 가르쳐주어야지 그걸 왜 고민했을까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로서는 심각한 고민이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의 내용이 워낙 세간의 말로 전달할 수가 없는 초세간적인 것이었고, 굳이 말로 가르친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은 다 제 요망으로 받아들여 세간적으로 이해(오해)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석가모니의 그 일화가 고전문명 발생기의 사상 및 고전종교 조종들이 언어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이유를 단적으로 시사해준다. 세계와 인생의 궁극적인 진상에 대한 통찰과 지혜는 말로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말이 그렇거늘, 이와 관련하여 문자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 풀어놓기로 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상식퍼즐

가로

1. 태어난 날 5. 국민 일반에 관한 일 7. 사대상에 따라 자신의 존립단을 유지하려는 주의 8.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9. 물건을 써는 데 쓰이는 작은 보 11. 조계종에서, 비구 법계의 1급을 이르는 말 13. 어형(語形)은 다르나 뜻이 같은 말 14. 글꼴의 작은 점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 검푸른빛이 나는 광물 15. 어린이의 얼굴 16. 원래 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사되고 있는 자리 19.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쓰는 재래식 기중기 21. '가'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조 23. 남서풍의 옛사람 말 24.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25. 대저연의 넓고 큰 땅 27. 놀려서 죽임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삶과 죽음 2. 서로 다른 순수 품종을 교배시켜서 얻은 최초의 것 3. 기상으로 말미암아 파해기에 상될 때 내는 예보 4. 사기그릇·오지그릇·칠그릇을 아울러 이르는 말 5.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6. 자기 개인의 의견 10. 언거 마지않는 스님들이 하는 행사 12. 개인 또는 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13. 음력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 승려들이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수행에 힘쓰는 일 17. 절에서, 사시(四時)에 부처님 앞에 올리는 밥 18. 딱 잡다 결정하거나 단언을 내림 20. 고기잡이나 저기잡의 중심부 기암의 값 21. 사물을 수호하는 신 22. 선종에서 달마(達磨) 계통의 남종승 23. 빛과 대조로 습지나 냇가에 흔히 숲을 이루어 자람 25. 관리가 살도록 면에서 지은 집.